초·중·고 교육과정 중심 진로교육 강화

전라북도교육청, 올해 자체예산 12억원·지자체 7억원 등 총 25억원 편성 진로교육 활동 내실화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5억원을 편성,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중·고생은 평균 1.3회의 진로체험교육에 참여했다.

진로체험 14만7,000명, 진로캠프 2만5,000명 등 연인원 17만3,000명으로 전체 학생 12만7,000명의 136%를 보였다. 이중 중학생은 1백98%로 진로체험 비중이 높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예산 12억원, 지자체 7억원 등 총 25억원을 편성, 진로교육 활동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초·중교는 3시간, 고교 4시간의 진로활동 시수를 확보하고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을 3년간 2단위로 편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교과수업과 상담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캠프를 운영하고 중·고교 담임교사 및 진로업무 담당자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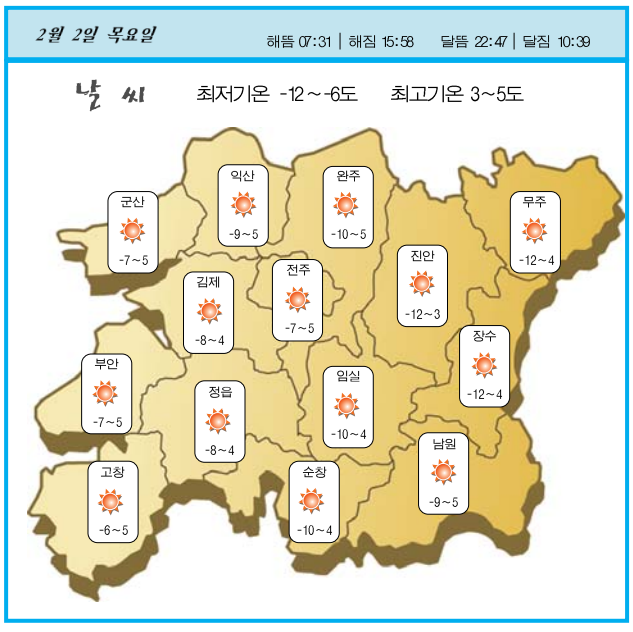
이와 아울러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의 진로상담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는 특색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어촌 ICT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진로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제도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기반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고 역량강화 등을 강화함으로써 전북의 진로진학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사랑의온도탑 100도 훌쩍 넘어 1일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지난 1월27일 기준으로 114.1도로 모금 목표액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육계획 이렇게 바뀝니다

도내 교육지원청 이번주부터 설명회 진행

올해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정책 등을 교육가족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2017 교육지원청 교육계획 설명회'가 이번 주부터 각 지역별로 진행된다.

정읍교육지원청은 1일 오후 2시부터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지원청은 이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시간30분 동안 올해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실초등학교에서는 '2017 찾아가는 임실교육계획 권역별 설명회'가 열린다.

임실읍 권역 유·초·중·고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는 이날 설명회에서 임실교육지원청은 올해 임실 주요 업무계획의 이해와 공유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실교육지원청은 3일, 6일, 7일에는 각각 관촌권역, 오수권역, 강진권역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설명회를 갖는다.

2일에는 장수교육지원청(장수교육지원청)과 김제교육지원청(김제여중)의 교육계획 설명회가 열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펼쳐진다. 이어 3일에는 순창교육지원청이 오전 10시부터 설명회를 갖고 7일에는 완주교육지원청, 9일에는 무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계획 설명회가 각각 열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계획 설명회는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청년활동공간 '비빌' 문 열어

민간 운영 중인 공간을 청년활동공간으로 지정 무료로 공간 대관
자유롭게 모여 서로의 생각·아이디어 공유하고 교류

전주시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회의와 모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활동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일 고사동 영화의거리에 위치한 우깨팩토리에서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간을 '전주 청년활동공간 비빌'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비빌'은 모임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공간 부족, 대관 비용 등에 부담감을 느끼는 전주시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모여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소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을 전주시와 사업자의 협약을 통해 모임을 위한 장소를 찾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대관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청년활동공간 비빌은 약 30명 정도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링크홀(약 130㎡)과 10명 이하의 인원이 소규모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10㎡)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이용 하루 전에 예약을 신청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비빌이 문을 열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생활하는 전주시 청년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전주시 청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빌을 이용하는 청년들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청년의 활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 등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청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문제해결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비빌 시범운영을 통해 전주시 청년들의 공간이용 수요를 파악한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청년경제 육성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창업청년 지원과를 신설하고,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병무청 오거리에 청년들의 성공창업과 취업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공동창업지원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동창업지원실은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기기 등 공동사무요소를 갖추고 있어 창업에 관심을 가진 전주시 청년들의 창업 시제품 전시와 상호 의견 교류의 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공동창업지원실에 이어 청년활동공간이 문을 열면서 국가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를 청년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원과 연계해 대규모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신입생 배치고사 공교육 정상화법 준수 당부

전북도교육청은 1일 일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반 배치고사와 관련, 공교육 정상화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입학생의 학력 진단 결과자료는 중학교는 학력진단평가,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입학 전후 배치고사를 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과제 제출이나 배치고사를 예고한 학교는 즉각 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은기자